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탁계석



옛것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인천시립 합창단의 뮤지컬 오라토리오 '모세'(우효원 작곡) 공연이 있었다. 시립합창단으로선 이례적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브랜딩 상품을 만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출발했다.

그런가 하면 고요하고 정적인 정가를 음악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변화의 옷을 입히는 것을 보여 격세지감을 느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전당 개관 기념으로 월드필름오케스트라 콘서트에 있었는데, 5000명의 청중이 큰 감동을 느꼈다. 각 도시마다 시립교향악단이 있긴 하지만 시가 월드필름오케스트라 지인 만족을 높이고 도시 문화 역량을 키웠다는 평가다.

대전 시립교향악단도 지난달 서울 콘서트에서 변신의 모습을 보여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처럼 극장은 극장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문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그간 소외되었던 예산을 클래식에 투자하고 있다.

관객이 많이 모이는 것이야 대중문화 쪽이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가 명품을 찾는

고급 정서가 지배적이어서 클래식을 선호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 느낌이다.

서울시합창단은 오는 12월 '칸타타 한강'(임준희 작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은행에서 전석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요청이 왔다고 하니 격세지감이다. 그만큼 클래식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클래식 레퍼토리를 준비하는 지자체들

레식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남에서도 경남오페라단에 매년 지원을 하는 지역은행이 있어 문화가 풍성하게 꽃피고 있는 것은 나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도 공공 투자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것은 문화의 방향을 바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무릇 세상의 이치가 풍성해지면 보다 나은 것을 찾게 된다. 대중문화 향유가 시장 면에서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 가고는 있지만 '동남아'라는 한계 시장에서 땀과 있다. 지금의 10대 청소년과 드라

마 청중들로 채워진 시장을 벗어나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면 현재의 상품으로는 지속적인 시장 개척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은 동유럽과 서유럽에서도 조차 서로의 문화적 자존심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자신들이 접하지 않은 동양의 문화가 이곳 상류 사회로 쉽게 접어들 수 없음은 당연하다. 우리 것이 소중하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것만 이야기해서는 좋은 대항법이 못 된다.

하지만 클래식에 대한 사회 인식이 달라지고 지자체의 브랜드 클래식을 만들려

는 노력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엄청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 된다.

얼마 전 해외의 시장 개척을 위해 '아리랑 간판'이라는 성악 그룹이 결성되는 가하면 새로운 동호인 시장 개척을 하려는 움직임도 부상한다.

이제 지자체 행정 담당직원들도 보다 많은 정보들을 흡수하고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열어 좋은 프로그램을 짜는데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

옛것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김

성진)가 터키극장에서 우리 연주들과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들고 한터문화교류의 밤을 열어 우리 전통음악과 우리 클래식을 소개한다니 이런 일들이 더욱 왕성해 질 것은 분명하다.

그간 우리가 성장에 바빠서 그럴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발상을 달리해야 할 때가 왔다. 고부가가치의 블루오션 시장에 고급클래식이 나가야 한다. 서구사회에 코리아의 멋과 명품을 잘 보여 줄 때가 왔다. 그들도 동양의 문화를 고대하고 있는 지 모른다.

콘서트나 오페라극장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면 그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겠는가. 이제는 질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이제 창작자를 우대하고 단체 지원법도 고쳐 선의의 경쟁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다. 중앙 공급식 문화도 이제 지자체마다 바로 글로벌 시장 개척해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시민들은 정지권에서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도 신선한 바람을 원하고 있다. 그 변화를 수용하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다. 특히 시민의 문화 반응과 요구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한국예술비평가협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GS '원료 중단' 공포, 공정위는 대체 뭘 하나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인 GS칼텍스가 공장부지 매입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금호파엔비화학에 원료 공급을 전격 중단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예수시가 최근 공개 매각한 여수산단 내 적량지구 공장부지를 금호가 GS칼텍스를 제치고 낙찰받은 데 대한 앙갚음이라는 것이다.

금호파엔비화학에 따르면 GS칼텍스 측이 입찰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벤젠 공급을 할 수 없다고 구두 통보한 뒤 1주일 후 특별한 사유없이 내년도 벤젠 10만 톤 공급 계약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금호파엔비화학은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며, 벤젠 수입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을 가동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호파엔비화학은 GS칼텍스가 공급하기로 한 이번 달 물량 8000t 가운데 2000t 밖에 받지 못해 여천NCC와 호남석유화학 등으로부터 벤젠을 추가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벤젠 수입이 원활치 않을 경우 폴리비닐렌이트 생산 차질로 인근 LG화학, 호남석유, 제일모직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GS칼텍스의 원료 중단은 기업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갑'의 입장에서 '을'을 억누르는 횡포나 다를 없는 것이다. 사실상 원료를 무기로 낙찰 받은 땅을 내놓으라는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GS칼텍스는 GS그룹의 모기업이자 국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서 주종이든, 협력관계든 상생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일탈행위를 한다는 건 이명박 정부가 국정지위를 한다면 살고 있는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대기업의 물지각이 유행하는 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GS칼텍스는 당장 공급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진상 조사와 함께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부품가·공임료 관리기준 시급하다

자동차 정비업소마다 부품가격과 공임료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업소마다 '부르는 게 값'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다르지만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감축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일보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시내 7개 자동차 정비업소를 돌아다니며 견차를 돌려받기 위해 정비비를 지불할 때의 실정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업소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로제 승용차(2000cc)의 경우 제너레이터(발전기) 교체 비용이 9만 원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이보다 두 배나 많은 20만 원을 받는 업체도 있었다.

아반떼(1500cc) 차량도 동일제품의 엔진오일 가격이 최소 4500원에서 최고 2만5000 원까지 5배나 차이가 났다. 자동차 정비사 오일 가격은 5000원에서 무려 8만 원까지 하는 등 제멋대로였다.

여기에도 공임료도 시간당 1만~4만 500 원으로 업소별 정비요금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특히 정품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에 저가품을 사용해서 수리가

간을 단속시키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 같은 업소마다 제각각인 자동차 정비요금의 무질서는 거의 관행으로 굳어지다시피 했다. 요금을 둘러싼 정비업소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동차 정비에 관한 규제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소가 '횡포'나 '바가지'를 써줘도 소비자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897만대로, 인구 2.76명당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한 세대에 1~2대가 있을 정도로 생활필수품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자동차 부품가격이나 정비요금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불성실이다. 당국은 당장 자동차 정비 관련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과당 경쟁구조인 정비시장을 바로잡아 소비자만 골만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박형준

'디지털 시대' 목·어깨 통증 가볍게 보지 말자

얼마 전 진료실에서 20대 중반의 건강한 청년을 진찰했다. 어깨랑 목이 많이 뭉치고 빠근하고 아프면서 목과 어깨의 통증이 심할 때는 잠도 잘 못들 정도라고 심한 불편감을 호소했다. '살마 20대의 젊은 나이에 목디스크 질환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목 X-ray 검사를 해봤더니 목뼈의 각이 변형되는 일자목을 넘어선 일명 '거북목'의 양상이 보였다.

일반적으로 목디스크는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는 나이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젊은 20대의 청년은 적어도 10년 이상 빠른 나이에 목 디스크 질환이 발생한 것이다. 환자는 신경차단요법을 통한 통증 조

절과 경추부 교정 견인 치료를 받고 현재는 목과 어깨의 통증이 많이 좋아진 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목 디스크 병을 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보급되면서 어디서나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걸을 때나 이동할 때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요즘 20대를 보면 목 디스크 질환이 젊은 나이에 잘 발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모니터를 내려다보며 거울처럼 머리를 오랫동안 저행하다 보니 목과 주변 근육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목 디스크가 나빠지게 된 것이다.

팔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목 부분을 진단해보면 대부분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처럼 목이 변형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경추는 C자형인데 반해 목뼈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일자형이 되거나 앞이든 뒤든 목뼈가 정상크기를 잃게 된다.

목뼈를 변형시키는 주요 원인은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 경추 및 경추 관절에 외상을 입는 경우, 잘못된 자세로 컴퓨터를 자주 쓰는 경우, 운동 부족 또는 갑작스런 무리한 운동을 했을 경우, 장시간의 운전 등 머리와 목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는 경우, 수면시 앞드려 자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목뼈를 변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척추의 목 부위에는 7개의 목뼈가 있다. 목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어서 머리의 무게를 분산시켜주고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목뼈가 변형되면서 디

스크에 손상이 생기고 손상 정도가 심해지면서 수핵이 돌출돼 척추의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 질환이 바로 경추디스크, 일명 목 디스크 질환이다.

목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으로 주로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목 디스크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환자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목 디스크 환자들이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린 이유는 목뼈 가운데 구멍을 관통해 지나가는 신경 가지들이 팔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위에 기술했던 증상이 1주에 4~5회 이상 나타나다면 한방쯤은 목디스크나 목뼈 후관절의 이상을 의심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목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목과 어깨의 통증을 가볍게 보지 말고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다면 목 디스크 병은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동광주우리병원 원장)

기고



김한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엔 農道 미래 있다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고 높다. 더 없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면 이것이 하늘에 떠 있는 우리네 농심(農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봄에 정성스레 씨앗을 뿌려 여름 내내 불볕더위와 씨름하면서 가꾼 농작물을 가을이 되어 거두는 기쁨은 성실한 농민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 크기를 알지 못한다.

'입입개신고'(粒粒皆辛苦)라는 말이 있다. 곡식 한 알 한 알에는 농민의 피땀과 정성이 깃들여 있고 그리고 창의력이 스며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이런 결과물의

전시장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그린 농식품 행복한 소비자'란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을 동안 나주 산포면 산재리 신선자리에 위치한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펼쳐진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보다 발전되고 진화된 농업으로 재배·수확한 농특산물을 전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과학기술 영농의 의지와 희망을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

올해는 향기체험관 등 여덟 개의 전시관에 유품 전시품·가정원에·이색 농산물 등 20여 품목의 농특산물을 진열한다. 향토음식 판매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현장에서의 먹을거리를,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장에서는 저장해 먹을거리와 선물거리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공연 행사도 준비했다.

또 농업 및 농촌관광 사진전, 다문화가족 문화발표회, 쌀 이용 촉진 전략 세미나 등도

열린다. 이와 별도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계약, 국내 바이어와의 구매약정, 현장 판매 등 약 300여명의 농가소득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농민들에게 농업도 다른 산업에 못지 않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1등 농산물 수출국은 미국이지만 2~4위는 평평여리가 큰 중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이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순이다. 이는 현대의 농업의 소득은 토지·노동·자본의 3요소 외에 기술, 경영주의 역할을 합친 5요소에 의해 결정됨을 암시한다.

어느 산업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시대의 트렌드가 환경보전과 웰빙을 넘어 '로하스'(LOHAS)로 가고 있다. 전남도와

농업기술원이 그동안 친환경농업과 과학기술영농에 전력투구한 것은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농민들과 협동해 친환경 농업과 과학영농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농도(農道)인 우리 도의 시대적 소명이다. 전남도와 농업기술원은 이런 노력의 결과를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통해서 농민들이 전파하고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잘사는 농촌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제10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내년 국제 농업박람회의 프레(Pre) 박람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임무가 막중하다. 여느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올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내년 '국제 농업박람회'의 성공 여부는 도민들의 관심의 크기에 달려 있다. 와서 보고, 배우서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가 없다면 잘 준비한 박람회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도민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관리담당)

無 等 鼓

최근 열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과 3차전 경기 결과를 두고 KIA 조범현 감독의 투수 기용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 앞바퀴 하기는 이르지만 야구도 역사와 같이 '가정은 없지만 교훈'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조직의 최고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나아가 할 방향을 실수 없이 알려주는 가장

는 교훈 자리에서 강하게 패워했고, 이 과정에서

메디치은행은 폐위당한 교황에게 거액의 보석을 대물림했다.

모든 것을 박탈당한 교황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는 것은 은행가로서는 절대 삼가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메디치가가 고

리더의 통찰력



객에 대한 신의를 절대로 지키는 것을 확인한 교황과 유럽 각국의 국왕들은 앞다퉈 고객이 됐다.

리더는 과거에서 배우고 역사에서 통찰력을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민하고 통찰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병자호란이 발발 했을 때 인조는 청나라 군대의 규모나 남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전략적으로 후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삼전도 굴욕'이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저 하루 즐기고 노는 날에서 야외활동의 진정한 효과가 있는 소풍이 되도록 학생과 교사, 학교의 충분한 사전계획과 실천이 뒤따랐으면 한다.

▲우항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222-649 편 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222-616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전 산 팀 2200-68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교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 획 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교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 획 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풍 취지 퇴색...쉬는 날 아닌 알찬행사로 만들어야

10월 중순은 대부분 학교의 가을소풍 기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야외현장학습, 자연관찰 및 보호, 단체생활 적응 등 소풍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단순히 '하루 수업량을 줄이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잠깐 모여 출석을 점검하고 해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60, 70년대 소풍은 원적(遠足)이라 하여 자연을 벗어와 관찰을 하면서 급우들과 오순도순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 거리를 걸곤 했다.

그런데 요즘 소풍은 단체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 가져온 음식을 먹고 해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찍 소풍행사를 마친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영화관이나 PC방에 가고 일부 학생들은 유흥업소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도 모여 회식을 하고 일찍 마치고 하니 소풍의 원래 목적이 퇴색한 것이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보다 유익하고 알찬 행사계획을 세워 교육적인 소풍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즉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이 대한 관찰, 우리의 전통적인 씨름이나 제기차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